

문제 1

1. 사실, 완벽한 답안이고 글자 수가 대략 100자정도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서술에서도 충분하고, 주장도 충분하며 모범답안의 기준이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수고했어요 :)

2. 그렇다면 1번 지적에서 말씀드린 글자 수의 해결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한편 사회의 자연적 특성의 억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 개인들의 영향력을 일부 인정한다는 점에서 순서 상 (나)보다 앞에 온다.” 서술하신 내용을 예시로 설명할게요.

여기 까지만 서술하더라도 의미는 충분 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억제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어떻게 제시문에 나타나는지 서술해주면 내용도 더 풍부해지며 글자 수 문제 또한 충분히 해결 될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부분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런 근거 보충을 한 두 부분만 늘리시면 글자 수는 충분히 해결 될 것입니다!

문제 2

1. 지금 3자비교 형식으로 해결책들을 나눠서 설명한 점은 좋은데 하나 아쉬운점이.

“ 한편 개인적 차원의 해법은 외부적 접근과 내부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의 해법은 내부적 접근에 속한다.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논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적 요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한 구성원이 자기 내부에 주어진 요건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이며 내부적인 해법이다. ”

이 부분이에요. 내용상으로는 틀린점이 없지만, (나)는 사회적 책임감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고 문제 1에서도 개인의 영향력이 적다고 보았죠. 따라서 문제 2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보여 집니다. 내용상으로는 문제 없어요.

2. 지금 (가)와 (라)도 내용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문제에선 해결책들을 제시하라고 했지 비교형식으로 제시하라는 의미는 없는데 굳이 비교 형식의 기준을 만들어서 억지논리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지금 개인적/사회적 또 내부적/외부적으로 분류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이러한 기준에 대응되는지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기준을 만들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만으로 답안을 서술했어도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